전인치유**(Holistic Healing) –** 그리스도 **300%**

Absolute Bartizan (Genesis 37:1-11)

오늘의 말씀은 전인치유입니다. 전인치유란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부분의 치유를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 생각과 영혼이 모두 살아나는 것이 복음으로 인한 전인치유이며, 이것이 바로 절대망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범사에 대한 총명으로, 전인치유를 다른 표현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고 선택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며, 이미 답이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300%**, 곧 **그리스도 300%**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으면 사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결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살아나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인생 전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우리는 답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절대망대란 절대언약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사탄의 머리는 완전히 깨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지속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오직 그리스도 절대망대를 붙잡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망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개인적인 언약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며,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대망대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이라는 두 가지 절대망대를 가진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꿈을 통해 개인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하나도 예외 없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죽어야 할 사람이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리를 알게 되었고, 이집트 왕궁의 문화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철저히 준비된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영성 없이 어떻게 시편의 절반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망대를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으로 바뀌고, 눈이 바뀌면 실망하지 않게 되며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곧 사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게 되면 삶 속에서 참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절대언약의 삶을 살게 되며,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바뀝니다.

절대언약 위에 개인언약이 더해지면, 우리는 그 개인언약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게 되고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은 자에게 개인언약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약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가장 귀한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답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답이라고 고백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24**시, **300%**라는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절대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참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